

코로나19 사태 후 실업급여 신청 급증

2월 수급자 1520명... 전년 동월 대비 63.6% 증가
최근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상담 2배 늘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와 권고사직 권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오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승강기 입구에서는 센터 관계자들이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소독 작업과 발열 검사 등으로 분주했다. 실업급여 관련 담당부서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자 방문객 수십명이 대기석과 휴게실 등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 종사자 이모(58·여)씨는 “최근 3년 동안 일하던 호텔 관리자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며 “주위에 비슷한 일을 하는 지인들도 무급휴가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주지역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는 1431명으로 전년 동월 1413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 수급자가 15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6%(591명) 증가, 이번 달 현재(15일 기준)까지 93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22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은 제주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호텔 등 숙박업 관련 종사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했다”며 “하루 평균 전화상담 건수는 1100여건 정도였지만, 2월부터는 2배 정도 증가해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보기도 힘겨운 상



17일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이 대기표를 뽑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황”이라고 말했다.

도내 호텔 등 숙박업계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 아닌 강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내 한 대형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A(30)씨는 “무급휴가 권유가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거부하면 이후에 인사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전제적으로 따르고 있는 상

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내 한 호텔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임원들도 임금을 삭감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권고사직 처리된 인원에게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국방장관 “작전기강 확립 특단대책 마련”

제주해군기지 등 민간인 무단침입 관련 긴급회의
경계시스템 철저히 점검·보완해 적극적 조치 강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최근 발생한 제주해군기지와 진해기지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상황과 관련,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해야 하고 작전 기강 확립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인 무단침입 관련, 깊은 반성과 함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북한 소형무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여기 모인 군 수뇌부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각급 제대 지휘관들은 △기지 및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장비 등 제반 경계작전 시설·장비 점검 및 보완 △경계작전병력 운영의 최적화·효율화 △주기적인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 점검 및 훈련 △장병 대상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등 경계작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군사적 안보위협과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공존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다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부여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코로나19 사태 속 택배업체는 “바쁘다 바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상자를 분주히 나르고 있다.

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활동 강화

소규모 집단감염 전담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이송을 비롯해 기술 지원 및 자문을 맡고 있는 조직이다. 제주에서는 박형근(제주대 의전원 교수) 단장을 필두로 전문연구원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타 지역에서 잇따

라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대응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맡길 방침이다.

이에 제주도청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업무지원을 맡은 감염병관리지원단(단장 배종면 제주대 의전원 교수)과 함께 관련 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 업무 지원 △제주대학교병원·지방의료원 등 소개명령에 따른 운영 기술 지원 △선별지료소 운영에 따른 기술 지원 등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공무원 점심도 ‘따로’
확산 방지 복무 지침 시행

제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3교대로 점심을 먹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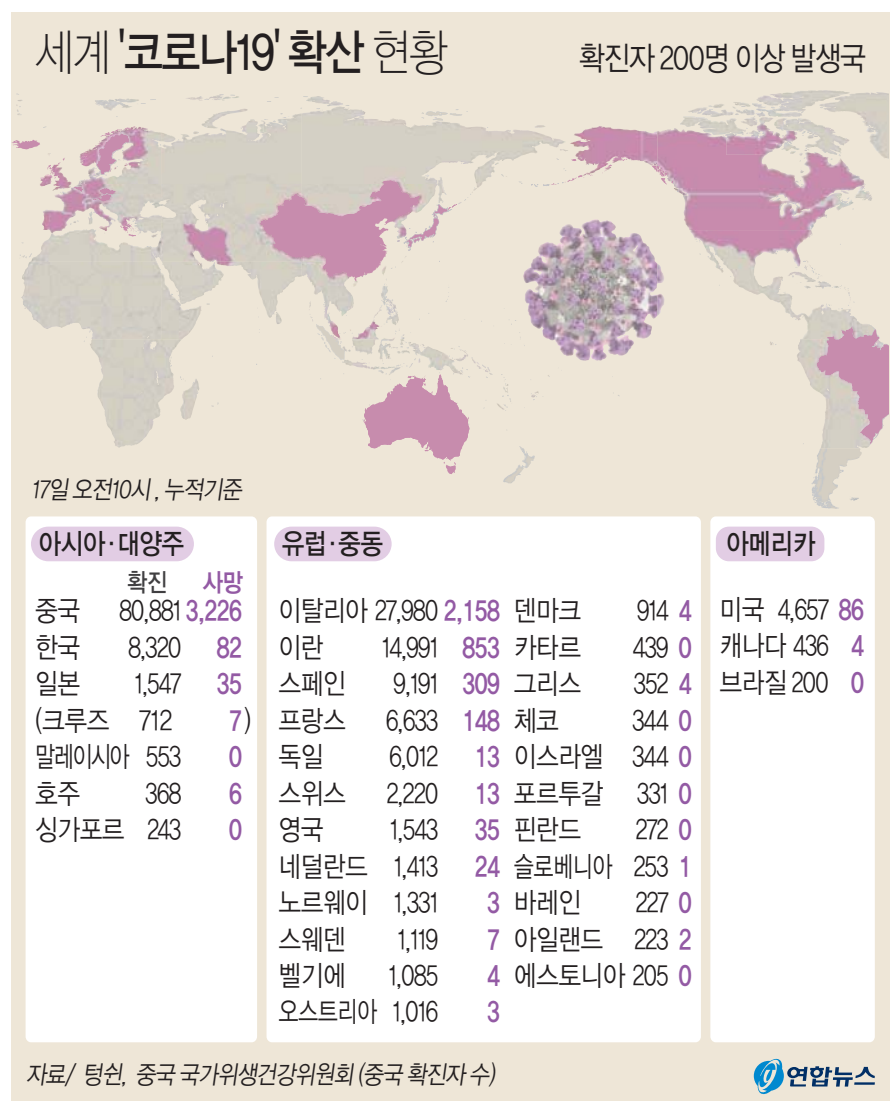
지침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무원(행정시·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기관 포함)의 점심시간을 3교대로 분산 운영한다. 시간은 ▷오전 11시30

분~낮 12시30분 ▷낮 12시~오후 1시 ▷낮 12시30분~오후 1시30분이다. 이어 18일부터는 구내식당 식탁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 직원간 비대면 식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회의와 집속, 공간, 행사, 시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사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회의는 가급적 대면회의를 지양해 영상회의로 전환하고, 동료 및 방문객과의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를 권고했다.

송은범기자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15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강 인 종

제15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읍 고성2리
마을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15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강 인 종

제15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정랑공파
明允宗친회**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15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강 인 종

제15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노인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韓 友 會
회 원 일 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스포츠의학박사

임 기 훈
(부 : 임성만 · 모 : 김금자 씨의 장남)

차병원의과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풍천임씨 충간공파 제주도종친회
회 장 임 성 만 외 회원일동**